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6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5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파괴 수사
더 이상 시간을 지라라!

검찰이 외면해도
우리의 투쟁으로
승리한다

검찰에게 법이 사라졌다

노조파괴를 수사하는 검찰에게는 법이 없다. 그저 정권, 자본 눈치보기만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노조파괴 사업장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창조컨설팅과 관련된 추가 증거가 밝혀지고 있고, 법원에서는 노조파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유독 검찰만은 버티고 있다. 검찰이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장 노동자들의 절규와 사회적 지탄이 안들리나

노조파괴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갖가지 탄압과 차별에 시달린다. 임금차별, 노동강도 강화, 인격모독, 노조활동 축소. 자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유성지회는 2011년 임금교섭을, 보쉬전장, 콘티넨탈 2012년 임단협을 아직도 하고 있다.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 틈만나면 잔업, 특근도 차별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된다.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는 무급으로 전임활동을 하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관리자들의 비아냥과 인격모독은 덤으로 주어진다.

노조파괴가 반 헌법적이고, 반 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이 쏟아졌다. 그 결과 희망버스가 유성지회 고공농성장으로 향했고 전국의 많은 양심있는 시민들이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정권과 자본은 3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면서 관심이 사그라들길 기다렸겠지만, 오히려 3년 동안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만 커지는 실정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여기까지 왔다

유성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은 226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보쉬전장지회는 매일 출투를 이어가며 19일부터는 108배를 시작했다. 콘티넨탈지회 역시 매주 출투, 간담회, 선전전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노조파괴 사업장들은 격주 금요일 공동출투와 매주 월요일 대전 검찰청 촛불집회를 통해 함께 투쟁하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외면해도 우리의 투쟁으로 여기까지 왔다. 검찰은 더 이상 버티다가는 스스로 법을 무시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조파괴 사용자 구속처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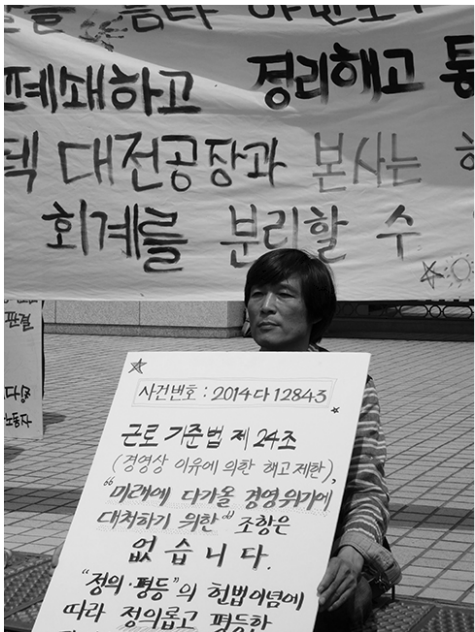
- ▶ 일시 : 2014년 5월 28일(수) 15시
- ▶ 장소 : 대전 샘머리공원 (검찰청 뒤)

콜텍 무기한 24시간 대법원 1인 시위

콜텍지회가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이어온지 벌써 7년이다. 정리해고를 할만한 경영상 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콜텍자본은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콜텍자본의 정리해고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실시한 회계감정에서도 밝혀졌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수익성이 양호해 대전공장 영업손실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회계감정의 결과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자신들이 실시한 회계감정 결과마저 무시하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제 마지막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회사에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없는데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떤 노동자들도 언제든지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다. 도대체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회사의 경영 위기를 왜 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경영’의 위기이니 당연히 ‘경영진’이 책임져야 마땅한데도 아직 오지도 않은 위기까지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24시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노숙농성을 하며 24시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법정투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열사 시신 탈취안 삼성, 끝장보자

삼성이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삼성 전자서비스 양산분회 염호석 분회장이 자결한 이후 시신 탈취 과정은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 열사의 부친이 장례를 노조에 위임하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꾼 이후 10분만에 경찰 200여명이 출동해 시신을 탈취했다. 부산, 양산 전 지역의 수많은 장지와 화장터 예약과 취소가 반복되었고 조합원들이 찾아간 장례 예약 병원마다 경찰이 미리 배치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삼성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과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의 조합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 뒤,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매일 서울 곳곳을 돌며 시민들에게 삼성의 만행을 알리고 본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급하게 상경한 조합원들은 숙곳과 양말이 부족해 3일, 5일씩 입는 약 조건 속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노숙투쟁을 이겨내고 있다.

노조는 24일 경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시신탈취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경찰과 그것을 배후조정하고 있는 삼성,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국의 지부 확대간부들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열사정신을 계승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5.24 경찰청 규탄집회 후 행진



↳ 지부에 마련된 염호석열사 분향소

세월호 3만 촛불, 계속되는 연행

24일 오후 6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천만의 약속’이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독립적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 후 도심을 행진했다.

특히 이날 행진을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등 2천여 명이 보신각 앞 사거리에서 청와대를 향해 진출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송경동 시인, 노동당 지방선거 후보자 10여명 등을 포함한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특히 쌍용차 조합원은 연행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시민은 길을 막는 경찰에 항의 하던 도중 경찰에 밀려 실신해 119 응급차량에 후송되기도 했다.

유경근 희생자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월호처럼 침몰해가는 그 순간에 서있다. 이 나라를 소생시켜야 한다. 살고 싶은 나라, 우리 아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잊지 말고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장동원 생존학생 가족대책위 대표는 “아이들이 살아 돌아온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먼저 간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유일한 길이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mcool@naver.com



<5.19 엔택지회 현장순회>



<5.19 노조파괴 재수사 촉구 촛불집회>



<5.23 유성 부당해고 판정 촉구 기자회견>



<5.23 콜텍 대법원 1인 시위_코스모링크>